

## 수행처리적 기억으로의 시제 문법 활용

- 기억·인지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제 학습 전략 -

박현선(한국교원대)

### 1. 연구의 목적 및 방향 제시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뇌에 저장하고 그것을 서서히 잊어버린다. 생각하고 학습하고 그것을 또한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뇌의 활동이다.

경험을 보유하고 유지하며,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재현하는 기능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한다. 시간적인 경과로 보면 암기하고, 저장 상태로 간직하고,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암기란 어떤 경험을 획득한다는 의미에서 학습의 측면으로도 볼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보유와 상기의 전체가 된다. 따라서 학습과 기억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외국어로서 독일어 영역에서 기억력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외국어 학습이 기억 활동과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외국어를 잘 습득하기 위해서는 문법과 어휘 요소들을 암기하여야 한다. 학습에 있어서 학습내용을 보다 더 오래 기억하고, 빨리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바람이 바로 외국어 교육 속에서 기억력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야기 시킨다.

기억심리학적인 논문에서 약 10년 전과는 달리 가장 인기 있는 단어 쌍은 ‘내재적 기억 implizites’과 ‘명시적 기억 explizites Gedächtnis’ 또는 표명적 지식 deklaratives과 처리수행적 지식 prozeduales Wissen이라는 것들이다. 오늘날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개념인 다양한 기억 체계의 구분, 특히 내재적 기억과 처리수행적 기억 체계를 살펴보고,<sup>1)</sup> 외국어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수방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기억력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조언들을 바탕으로 외국어 교육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1) Zimmer, Hubert(1997): Gedächtnis und Fremdsprachenlernen zum aktuellen Stand der Gedächtnisforschung. In: *Materialien Deutsch als Fremdsprache*, Heft 46. 이 연구는 Zimmer(1997)의 기억연구를 중심으로 기억이론에 대해 소개함을 밝혀둔다.

기억력과 관련된 교수방법의 연구는 주로 어휘습득에 관한 어휘력 부분에서 많이 실행되어져 왔다. 이 논문에서는 문법습득, 특히 시제습득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시제의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한다. 시제는 모든 문장 내에 표현되어 있는 만큼, 문법에서 필수 요소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제 문법이 단순히 암기적 지식으로만 남아 있으면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문장 내에서 수행적 능력으로 활용되어져야만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해 주기 때문이다. 문법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문법은 표명적 지식 체계에서 수행적 기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방법으로 학습자에게 인상 깊게 수용되어져야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처리수행적 기억과 내재적 기억이라는 두 종류의 기억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어학교육에 참조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얻어 내보고자 한다.

## 2. 처리수행적 기억과 내재적 기억

### 2.1. 처리수행적 기능을 위한 기억

70년대부터 인지심리학에서는 에피소드적 기억 *episodische Gedächtnis*과 의미적 기억 *semantische Gedächtnis*의 차이점을 알렸다. 의미적 기억은 어떤 사태에 대한 지식, 단어나 개념의 의미와 같은 세계지식과 관련된다. 에피소드적 기억은 이와는 달리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시-공간적으로 분류되어진 완전히 특별한 학습에피소드 *lernepisoden*와 관련되어져있다. 의미적인 것은 예를 들면, 단어 ‘휴가’의 의미에 관한 지식이며, 에피소드적인 것은 1996년 니스에서 휴가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알고 *wissen* 또는 인식하고 *kennen*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회상한다고 말한다. 이런 일상생활의 지식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표명적 지식 *deklaratives Wissen*이라 부르고, 또 다른 지식의 형태를 처리 수행적 지식 *Prozedualen Wissen*으로 구분 짓는다. ‘표명적’은 개념적이며 그것에 대해 바로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처리수행적 지식은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야기

하기 보다는 차라리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수월할 것이다. 처리수행적 지식은 특정한 능력 속에 내재적으로 속해 있으며 그 일을 해낼 능력을 부여해주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예로써 움직이는 행위 *motorischen Handlung*를 일컬어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운전할 수 있으며, 글을 쓰며, 테니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운전,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지식을 입으로 설명하기는 그리 쉽지 않지만, 반면에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다지 어렵게 느끼지 않는다. 합계를 내고, 통사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만들어 내고 문서작업을 하는 등의 인지능력 *Kognitive Fertigkeit*도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배웠고, 이 행위들을 위해서 일종의 기능적 기억 *Funktionierendes Gedächtnis*을 사용한다.

특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록 불러오는 *Abruf* 방법은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는 기억의 두 원천을 함께 사용한다. 만약 자동차의 후진 기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기억 속에서 그 정보에 대해서 찾아야만 한다. 상황에 따라 — 예컨대 바로 면허증을 취득했다면 — 우리는 그 대답을 기억으로부터 바로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나 운전을 오래한 숙련된 기술자들은 아마도 그들의 기억 속에 그것은 분명히 상징적으로 끼워져 있기 때문에 후진기어의 위치를 모션을 취해 봄으로써 후진 기어가 어디인지를 움직임으로 알아낸다.

‘표명적’과 ‘수행처리적’ 기억으로 명명되는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지식 저장품은 우리의 다양하고도 중요한 기억체계이다. 이러한 다양한 기억체계 가운데,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기능은 표명적 기능이 아닌 수행처리적 기능이기 때문에, 어학 수업과 관련하여 수행처리적 기억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2. 내재적 기억

표명적 기억과 수행적 기능의 언급과 함께 떠 오른 또 하나의 개념이 있다. 바로 내재적 기억 *Implizites Gedächtnis*이라는 개념이다. 내재적 기억이라는 설명에서는 앞선 학습경험이 실제 작업을 하는데 미치는 특수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에 다른 리스트에 제시되었던 단어들은 처음으로 제시되는 단어들보다 더 빨리 인식되어진다. 마찬가지로 처음 보여지는 그림

보다도 다시 한번 더 보여지게 되는 경우에 더 빨리 명명되어질 수 있다. 이 효과는 자극의 반복된 제시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복효과 또는 되풀이 각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특수한 자극이 내재된 기억효과는 일반적이며 비특수 자극적 연습효과와는 구분될 수 있다. 즉 연습효과는 다른 자극에 대한 일반화이다. 반면에 내재적 기억효과는 특수한 자극의 반복과 관련되어져 있다. 지각적인 내재적 테스트, 그것을 목적으로 한 읽기, 인식 또는 명명 헤아리기 등은 초자극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 반복 효과는 다른 물리적인 자극이 제시되면 즉, 언어가 바뀌거나 상황성이 바뀌게 되면, 분명히 그 효과가 작아진다.

내재적 기억과제를 자유회상, 재인식등과 같은 고전적인 표명적 기억과제와 비교 해 보면, 그 근본적인 차이가 명백히 나타난다. 표명적 기억과제에서는 회상과 관련되어 있지만, 내재적 기억과제는 순간 자극과 관련된다. 따라서 내재적 기억효과는 비의지적인 기억효과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는 기억력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기억을 표명적 기억과 내재적 기억으로 분리해서 기억의 종류를 관찰해 봄으로써 기억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는, 두 기억력은 서로 다른 기억 체계를 기초로 한다는 점이다. 표명적 기억력을 위해서는 해마모양의 돌기 Hippokampus와 같은 특정한 뇌구조가 책임이 있는 것 같다. 반면에 내재적 기억력은 다른 기억 체계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많은 내재적 능력은 감각적 투입체제 내의 회상흔적 Erinnerungsspuren in den Sensorischen Eingangssystem에 기초를 두고 있다. 두 번째는, 전이-적합한 작업 transfer-angemessen verarbeiten이 행해질 때 기억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학습 또는 테스트하는 동안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전이에 적합한 재료로 만들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학습하는 동안 그 자료를 오랫동안 충분히 다루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중요한 것은 정보가 해당 학습 기준에 관련되게 적절히 개작되어지는 것에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어학 학습에 있어서 학습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고, 기억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표명적인 지식적 문법 소개가 아니라, 내재적 기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적 감각 제시법이 필요하며, 학습 소재는 언제나 상황에 맞게 전이 가능하도록 개작되어야한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또한 내재적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우리는 내재적 학습 *implizites Lernen*이라는 개념을 끌어 낼 수 있다. 사람은 체계의 규칙을 배운다. 다시 말해, 그 규칙에 대한 지시적이고 표명적인 정보를 주지 않았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표명적 학습이 아닌 규칙의 내재적 학습에 관한 것이다. 내재적인 학습과 내재적인 기억은 ‘태도나 행위’ 속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추론되어질 수 있는 기억의 한 형태이다. 그와는 달리 표명적 기억은 의식하는 기억이다. 내재적 기억과 내재적 학습이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없는 이유는 내재적 기억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대개는 일회적이며 가끔은 짧은 자극의 제시로 충분한 반면, 반대로 내재적 학습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련의 자극을 많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재적인 규칙지식은 천천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와 같이 기억의 다양한 종류 가운데 특히 처리수행적 기억과 내재적 기억은 표명적 기억에 머물러있는 단순 문법 지식을 의사소통이라는 목적에 적합하게 개작시키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하는 중요한 기억의 종류이다. 기능-의사소통 중심의 문법 교육의 목적은 문법 지식이 합목적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처리수행 기능으로 사용되고, 나아가 내재적 기억으로 작용하여 상황에 맞도록 적합하게 개작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제안해 볼 때, 이 두 기억의 종류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3. 내재적 기억의 활성화 방안

#### 3.1. 내재적 기억과 표명적 기억의 상황관련성 비교

다양한 기억체계에 대한 토론은 이미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서 행해졌다. Paivio(1986)는 기억을 상황관련적 재현 그리고 시각 또는 발화와 관련된 이미지코드로 나누어서 그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이 논문을 발전시켜서 Zimmer(1997)는 표명적 기억 테스트를 위해서 감각적 영역과 개념적 영역을 분리하였다. 즉 제시된 대상의 형태, 그것의 물리적인 자질, 단어의 발음이나 문자모

양등과 같은 자극표층의 제시를 의미제시로부터 구별했다. 정보의 표층자질을 여러 방향에서 개작하는 것보다는 자극의 의미를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작업하는 것이 더욱 오래 기억되어진다. 기억 속에는 그것의 현상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극의 의미가 남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자극의 현상은 의미보다 오히려 더 빨리 잊혀지게 된다.

그러나 표명적 지식과는 달리, 내재적 기억 효과의 크기는 정보의 개작 정도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정보가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제시되는 것은 거의 기억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따라서 자극의 의미만 남아서는 안 되며 기억속의 표면적 현상 모습들까지도 고정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내재적 기억형태는 명확한 자극의 표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의 기억효과를 요구하는 의도에 적합하다.

표명적 기억과 내재적 기억이 상반되는 분명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표명적 기억으로든 또는 내재적 기억으로든 우리 뇌에 저장된 기억의 단편들은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는 장소정보, 상황성과 같은 많은 정보를 넘어서 통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호관련적 하부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서로 상이한 하부체계들은 그때마다 특수한 정보를 작업한다. 이 체계의 대부분은 작업의 기억흔적을 형성하고 있다. 외부자극에 의해서 다양하게 내적으로 남게 된 기억의 단편들을 그때그때 체계 속에서 작업하여 각 정보를 자동적으로 통합한다. 이외에도 이 하부시스템은 체계에 간섭적인 재현을 한다. 예컨대 에피소드 징후 *episodische Token*가 바로 그러한 간섭적 재현이다. 이 에피소드 징후는 다양한 부분재현 *Teilrepräsentation*을 하나의 의미 덩어리 *Chunk*에 결합시켜서 자질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다른 의미덩어리 *Chunk*는 없는가? 그리고 언제 정확히 자질들이 형성되어지며 내지는 언제 자질들이 연결되어지는가? 등의 의문이 있다. 이러한 작업을 행할 수 있는 최고상부가 바로 작업기억 *Arbeitsgedächtnis*이다.

### 3.2. 작업기억

작업기억은 기억의 활성화 작업이다. 그의 임무는 이 활동을 유지하는 것과

실제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접한 다양한 감각 정보는 인지체계에 지각되어 등록이 되고, 여기에 등록된 정보 가운데 일부의 정보들은 단기기억 *Kurzzeitgedächtnis*에 저장된다. 단기기억은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즉각적으로 현재에 연상시켜주는 표명적 기억이다. 표명적 단기기억은 인지과제를 수행할 때 학습, 사고, 이해의 측면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작업기억의 구실을 한다. 이러한 단기기억은 기억의 표면적 상황 하에 의해서 의미덩어리 만들기 *chunking*가 이루어지고, 단기 기억의 저장 능력은 확장되어간다. 즉, 지식습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학습 내용을 되풀이하고,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은 단기 기억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지 장기 기억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습득된 기억들은 단기기억 속에 머물다가 다음의 정보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이처럼 작업기억에서 처리된 정보의 일부는 잊혀지고 일부는 장기기억 *Langzeitgedächtnis*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때 새로운 정보가 바로 장기기억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옮겨가는 정보는 기억하려는 정보를 보다 쉽게 인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부호화 *coding*되어 있는 것이다. Hyde와 Jenkins의 연상실험은 특정 단어의 재생 또는 회상 여부는 그 단어를 처리할 때 수행된 인지적 조작 특성에 달려있으며, 인지적 조작의 정보 변형 중에서 조직화와 유의미성에 기초한 부호화 *coding*가 학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작업기억은 정보를 단기기억에서 인식작업을 거쳐 명시화 기억으로 남기거나 또 다른 정보와 의미를 연결시켜서 정보를 확장시키는 작업, 기존 정보의 자리를 새로운 정보에게 내 주고 소실되거나 또는 특정 정보를 장기기억 장치로 전이시키는 등, 정보가 처리되는 연속적인 단계를 통합적인 개념 기억 망에 담아서 연결시키고 활성화시킨다. 이때 장기기억으로 전이되는 정보들은 반복과 같은 표면적이고 지식적 인식작업이 아닌, 일회적이라도 에피소드적 의미 연결체를 가진 내재적 기억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기억의 특성으로부터 우리가 주지해야하는 것은 내재적 기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을 표명적에서 수행적으로, 나아가 지시적 의미기억에서 상황적 에피소드기억으로 자극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법지식을 내재적 기억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억하려는 정보를 쉽게 인출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부호화시키고 인지적 조작을 해야한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 4. 기억과 외국어 교육

##### 4.1. 시제교육에 있어서 유희의 필요성

독일어의 문장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동사이며, 그 동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드시 일정한 시제형태로 표현되어진다. 따라서 독일어로 문장을 구사하는데, 필수 요소 중에 하나를 시제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법은 그 자체의 습득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다. 의사소통을 진행시키는 수단이라는 뜻은 그만큼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문법 수업의 일차 목표의 단계에서는 문법이 표명적 정보로써 그때그때 바르게 제시되어야하지만, 궁극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써의 문법은 행동이나 상황 속에서 발현되는 내재적 정보로써 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우리는 대화 가운데 특별히 긴 시간 간격을 가지고 동사의 시제형태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그의 올바른 변화형태를 찾아서 말하지 않는다. 운전을 하고, 악보를 보듯이, 적합한 시제형을 아주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어 사용한다. 이러한 시제사용의 특성은 처리수행적 기억이나 내재적 기억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문법 시제가 표명적 지식에 남아서는 안 되며 수행적 지식으로 옮겨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은 결국 원활한 의사소통 교육에 좋은 기반을 이루기 때문이다.

문법 지식의 하나인 ‘시제’라는 부분을 표명적 기억이 아닌 수행적 기억으로 전이시키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하는 부분이 바로 작업기억이다. 작업기억은 정보가 처리되는 연속적인 단계를 통합적인 기억 활성화 망에 담아서 연결시키고 활성화시킨다. 이 통합적인 기억 활성화망은 중심적 실행과 보조적인 종속체계인 음성충위와 시각과 공간의 작업기억으로 이루어져있다. 어떤 문법을 제시하여 암기하는 중심 실행기능은 종속시스템인 음성충위와 시각과 공간의 기억에 도움으로 활성화 될 수 있다. 바로 이때 초상황적인 다양한 감각과 에피소드에 의해서 해당 정보는 코드화되어지고 내재적이며 수행적인 기억이 된다.

시각과 공간의 자극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희이다. 그래서 시제 수



업에 시제 사용전략을 익힐 수 있는 유회를 도입시켜 시제를 표명적 문법지식이 아닌 내재적이고 수행적 능력으로 전이시키는 작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sup>2)</sup>

## 4.2. 텍스트 유형과 시제의 사용

### 4.2.1. 읽기 중심의 텍스트 유형 : 신문뉴스에서의 시제

독일어의 시제 형태와 시간 내용은 일대일 대응 관계가 아니다. 과거를 표현하는 현재형, 미래를 표현하는 현재완료형, 현재 사태를 진술하는데 사용되는 미래형 등 시제 형태와 시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된다. 이러한 독일어의 시제 사용은 시제 형태와 시간 내용을 분리하여 새롭게 제시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입장에서 의견을 내 놓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능주의 관점에 의해서 시제를 사용하는 의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시제를 통해서 화자는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즉, 시제를 화자의 의도 표현 수단으로 간주하여 그 내용을 파악한다. 그 의도는 보고 Reportive, 보편화 Nomik, 기대 Expektive이다.<sup>3)</sup> 이 세 가지 개념은 시제형태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는 시간 내용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해당 텍스트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 시간적 방향도 결정한다. 예컨대 지난 일을 회상하거나 보고하는 주제의 텍스트들은 보고 지향적 텍스트 유형, 일기예보, 선거선전공약, 별점운세와 같은 것은 기대적 텍스트 유형 그리고 광고, 서평, 법령과 같은 것은 주제의 시간 방향이 보편화인 텍스트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4)</sup>

보고 중심적 텍스트 유형에 전형적인 예로는 신문뉴스를 들 수 있다.

2) 이 연구는 시제 표현을 위한 형태 학습이나 형태와 기능의 연계학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학습내용 시제를 표명적 지식에서 처리수행적 기능으로 전화시켜보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간구할 수 있는지,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시도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3) 참조, 박현선(2004): 「주제의 시간적 방향에 따른 시제 사용의 교수법적 연구」.

4) 참조, 박현선(2003): *Tempusfunktionen in Texten, Frankfurt a. M.* (박사학위논문).

1) Die Textsorte “Nachricht” in der Zeitung

Mehr als achtzig Tote auf Java  
Erdrutsche und Vulkanausbruch

JAKARTA, 11. Februar (AFP/dpa).

Schwere berschwemmungen mit Dutzenden Toten und ein Vulkanausbruch haben die Bewohner der indonesischen Insel Java am Wochenende in Angst und Schrecken versetzt. 89 Personen kamen bei Erdrutschen ums Leben oder ertranken bei heftigen Regenfällen im Westen der Insel, wie die indonesische Presse am Sonntag berichtete. Im Osten flohen 12000 Personen aus der Umgebung des Vulkans Merapi, der glühende Lava und heiße Dampfwolken ausspie. Die Behörden riefen die höchste Alarmstufe aus. Am schlimmsten von den Regenfällen heimgesucht wurde die Region Lebak östlich der Hauptstadt Jakarta. (...) Alle Bewohner im Umkreis von acht Kilometern rund um den 2911 Meter hohen Vulkan mußten ihre Häuser verlassen. Sie fanden vorerst Zuflucht in Büros der Regionalverwaltung. Am Sonntag kehrten viele von ihnen zurück. Der Merapi nördlich der historischen Stadt Yogyakarta war zuletzt Mitte Januar ausgebrochen und seitdem nicht mehr ganz zur Ruhe gekommen. Er zählt zu den aktivsten Vulkanen auf Java. (In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1.02.2001)

이 텍스트 유형 신문 뉴스는 보고적 텍스트 유형이며, 주제 “자바 섬의 지진과 화산폭발”은 시간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전달하려는 사태는 이미 고정된 보고적 시간단계에 놓여 있다. 뉴스라는 텍스트 유형은 특정한 그리고 시공간적으로 고정된 사태를 다루는 특징이 있다(Vgl. Brinker 1997). 예컨대 위 예문의 “자바 섬의 지진과 화산폭발”이라는 주제의 뉴스는 “Jakarta, 11. Februar”라는 표현에 의해서 시공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텍스트 유형 뉴스는 또한 정보적 제시 기능이 우선인 정보 텍스트에 속한다. 이러한 정보적 제시 기능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수용자에게 이미 벌어졌거나 또는 경험한 사태나 현상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일반적으로 텍스트 내에서 동사에 의해서 표현되기도 한다: “89 Personen kamen bei Erdrutschen ums Leben oder ertranken bei heftigen

Regenfällen im Westen der Insel, wie die indonesische Presse am Sonntag berichtete".

이러한 어휘적 특성 이외에도 보고적 텍스트 유형 ‘신문뉴스’는 시제 사용에 있어서도 특징적이다. 신문유형에서는 시제 사용의 도식을 관찰할 수 있다. 주로 관찰되어지는 시제사용의 도식을 “도입부분의 현재완료형-진행부분의 과거형-결말부분의 완료형 또는 현재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Einleitungsteil** : Schwere berschwemmungen mit Dutzenden Toten und ein Vulkanausbruch haben die Bewohner der indonesischen Insel Java am Wochenende in Angst und Schrecken versetzt. [Perfekt ]

**Fortsetzungsteil** : 89 Personen kamen bei Erdrutschen ums Leben oder ertranken bei heftigen Regenfällen im Westen der Insel (...) Am Sonntag kehrten viele von ihnen zurück. [ Präteritum ]

**Schlusssteil** : Der Merapi nördlich der historischen Stadt Yogyakarta war zuletzt Mitte Januar ausgebrochen und seitdem nicht mehr ganz zur Ruhe gekommen. Er zählt zu den aktivsten Vulkanen auf Java.  
[ Präsens ]

이와 같은 도식 이외에도 명사구 또는 과거형으로 형식화된 표제어가 도입에서 현재완료형으로 쓰지면서 반복되어지곤 한다:

Mehr als achtzig Tote auf Java  
Erdrutsche und Vulkanausbruch

Schwere berschwemmungen mit Dutzenden Toten und ein Vulkanausbruch haben die Bewohner der indonesischen Insel Java am Wochenende in Angst und Schrecken versetzt.

보고적 텍스트 유형 “신문뉴스”에 사용되는 보고 시제형은 한 가지 형태가

아니다. 이미 발생한 사태를 간접인식의 방법으로 보고하는 현재완료 또는 과거완료의 형태도 사용되고, 이미 발현하거나 경험한 현상에 대해서 직접인식으로 재현·보고하는 과거형도 사용될 수 있고, 지난 일을 생생하게 표현하거나 또는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의도로 현재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시제형들은 모두 보고되고 있는 사태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는 보고 시제형이다. 그러나 그 텍스트 내에서의 기능은 차별화 된다. 사태에 대한 인식방법을 달리하여 시제를 선택함으로써 사태와 발화간의 간격을 나타낼 수도 있고, 사태를 객관화 시키거나 또는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뉴스 이외에 보고적 텍스트 유형에 속하는 것은 여행 기행문, 독자편지, 자서전, 회의보고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 보고적 텍스트 유형에 쓰이는 보고 시제형들의 쓰임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보고 내용은 과거형, 현재 완료형 그리고 현재형의 다양한 시제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다. 이미 경험하거나 벌어진 사태가 꼭 과거시제로만 표현된다는 한정적 사고는 버려야한다. 이미 발생한 사태도 다양한 시제형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된 시제들은 보고시제 과거형, 현재형 그리고 현재완료형이라고 칭한다<sup>5)</sup>.

- 보고시제로서 과거형, 현재형 그리고 현재완료형의 선택은 화자의 의도에 달려있다; 객관적인 사태의 보고에는 과거형을, 사태와 거리를 둔 간접인식을 통해 주관적인 보고를 끌어 내기 위해서는 현재완료형을 그리고 사태의 현장감 있는 표현 내지는 의견강조 기능으로는 현재형을 보고텍스트 내에서

5) 여기서 과거형, 현재완료형, 현재형을 모두 보고 시제라 칭했다. 이는 하나의 시제가 사태의 시간성에 고정된다는 개념을 깨기 위한 작업이다. 보고시제 이외에 보편화 텍스트 유형의 보편화 시제, 기대적 텍스트 유형의 기대 시제 등이 있는데 예컨대 보편화 시제도 과거형, 현재완료형 그리고 현재형이다. 이들은 보고 시제와 동일한 형태로 보이지만, 텍스트 내에서 그 쓰임과 기능은 전혀 다르다. 따라서 주제의 시간적 방향이 무엇인지, 그 주제의 시간 방향에 따른 텍스트 유형을 파악하면, 생산자가 지금 쓰려는 시제형, 예를 들어 현재형이 보고 시제로서 현재형인지, 보편화 시제 또는 기대 시제의 현재형인지를 알 수 있고, 그와 함께 텍스트 내에서의 현재형 시제가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정리할 수 있다. 보고 시제로서의 현재형은 사태의 생생한 보고 및 주관적 감정 표현인 반면 보편화시제로서의 현재형은 무시간성 현재이다(박현선: 1994 참고).

의 보고 시제들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 4.2.2. 쓰기 중심의 텍스트 유형 : 편지쓰기에서의 시제

수업에서 읽기 텍스트만큼 쓰기 텍스트의 종류는 다양하지 못하다. 읽기능력을 위한 자료는 풍부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에, 쓰기 능력을 위한 자료는 편지쓰기나 이력서 쓰기에 국한되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편지쓰기에서의 시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읽기 텍스트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의 시간적 방향에 따라서 보고적 텍스트 유형, 기대적 텍스트 유형으로 나누었듯이, 편지도 편지의 주제에 따라서 보고, 보편화 그리고 기대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보고적 주제에 속하는 편지쓰기 과제로는 “여행 중에 당신의 부모님에게 여행담을 적어서 보내세요”. “지난주에 무엇을 하였습니다?”, “친구에게 휴가 중 안부인사 및 방학 동안의 일을 써 보시오”등을 말해 볼 수 있다. 읽기 텍스트 “뉴스”를 통해서 살펴 본 시제 기능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시제사용에는 i) 다루고 있는 주제의 시간적 방향, ii) 사태를 직접인식해서 표현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간접인식으로 거리감을 두고 있는가와 같은 인식의 방법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요소는 시제 선택의 중요 변수이다.

먼저 쓰기 과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독일어 시제는 형태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표명적 지식으로서 문법사항이 설명되어진다.

기본 1단계:	과거형	:	현재형
	Tempusmorphem: {-te-}		{ ∅ }
확장 2단계:	+/- Partizip II		+/- Partizip II
	Tempusmorphem { ge-t } { ∅ }		{ ge-t } { ∅ }
	-----		-----
	과거완료형	과거형	: 현재완료형    현재형

근본적인 대립인 과거와 비과거의 대립 속에서 형태론적 특징 기본시제 과거형과 현재형의 대립 그리고 현재분사형의 결합 유무에 따른 확장시제형 과

거완료와 현재완료형으로의 확대를 설명하여 일차적 과제인 시제형태의 문법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 도표의 특징은 기존 전통문법의 6시제형태로 시제형태와 시간단계를 일대일로 대응시키지 않고, 기본시제에서 확대시제로 독일어 시제를 설명하며, 그 확장의 요소를 분사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거분사는 그 자체에 시간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완료된 사건의 상을 제시함으로써 사태의 직접인식이 아닌 사태에 대한 간접적인 상을 인식시킨다. 따라서 교사는 이 도표를 다음의 특성으로 정리해 줄 수 있다.

i) Gefüge 'Hauptverbstamm + {te}'

bei den Tempora in direkter Wahrnehmungsweise

ii) Gefüge 'Hilfsverb + Partizip I/II'

bei den Tempora in indirekter Wahrnehmungsweise

이제 학습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어떤 시제형태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내느냐는 문법적 실력이 아니라, 언제 어떤 시제형태를 사용할 것인지 수행적 기술면에서 나타난다.

다음은 주제적 시간방향이 보고에 속하는 편지의 과제이며, 그 예문이다.

과제:

당신의 친구에게 당신이 방학 중에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쓰시오.

Thema : Schreiben der Erinnerungen bzw. Erlebnisse in den Sommerferien

Seoul, den 30. September 1993

Lieber Wilhelm,

Ich danke dir herzlich für deinen netten Brief.

Hattest du eine schöne Zeit in den Sommerferien?

Wie war dein Aufenthalt in Spanien? Kannst du jetzt gut Spanisch sprechen?

In den letzten Sommerferien war ich zusammen mit meiner Familie an der Ostsee. Dort haben wir gezeltet und gebadet. Wir sind 3 Wochen geblieben.

Es war sehr schön.

Schon vor einem Monat hat das neue Semester bei uns begonnen. In vier Tagen machen wir eine Prüfung. Davor habe ich Angst, denn ich habe nicht viel dafür gearbeitet. Ab morgen will ich recht fleißig lernen.

Ich freue mich auf deinen Brief!

Mit herzlichen Grüßen

Deine Hee-su (현재형: 40%, 현재완료형:33.3%, 과거형 26.6%)

편지는 본질적으로 의사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편지들은 보고적 범주에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편지를 쓰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과 자신의 상황 속에서 그 사이에 일어난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인사와 함께 전한다. 이러한 의도로 쓰인 전형적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Cheju, den 5.8. 1995

Liebe Sang-mi,

Wie geht es dir? Ich mache gerade eine Reise. Jetzt bin ich in Cheju. Mein Zimmer gefällt mir sehr. Vom Zimmer aus kann ich auf den Berg Halla sehen. Morgen wollen wir auf den Halla steigen.

Nächste Woche bin ich wieder zu Hause.

Bis dahin!

Mit herzlichen Grüßen

Deine Soojin (현재형: 100%)

보고적 주제의 편지쓰기의 주요시제 Haupttempus는 현재형이다. 이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편지를 받는 상대방이 바로 얼굴을 면하고 있는 것과처럼 글을 쓰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대화와 유사한 방법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보고적 유형의 읽기 텍스트에서는 과거형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 반면에, 보고적 유형의 편지쓰기에서는 위의 이유로 주요시제로서 현재형과 보조시제로서 현재완료형이 상보적으로 사용되었다.<sup>6)</sup> 그러나 주요시제와 보조시제만의 파악으로

6) 참조 : 박현선(2003). 보고적 주제에 대한 편지쓰기를 90명의 고등학생에게 실시한 결과 현재형은 69.9프로, 현재완료형은 14.43프로, 과거형은 15.07프로였다. 그러나

는 언제 어떤 시제형을 사용할 것이며,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적합한 시제 형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 4.3. 시제 학습 전략으로서의 시제 진단 유희

4.2.1.과 4.2.2는 시제 학습 전략에 필요한 요소를 뽑아내기 위한 전제 작업이다. 위의 읽기 또는 쓰기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서 시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요소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주제의 시간적 방향이며, 두 번째는 사태에 대한 인식의 방법이다. 이 두 요소는 시제 진단 유희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수 요소이다. 이제 이 두 변이요소를 가지고 어떤 의도와 어떤 상황에 적합한 시제형은 어떤 것인지를 미리 진단 해 보는 시제 진단법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이 진단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의 주제가 어떤 시간적 방향인지를 파악한 후 해당 질문에 예, 아니오라는 답을 결정하여 화살표를 따라가서 상황에 적합한 시제형을 답으로 얻어내는 것이다. 이 시제 진단법은 보편화, 보고, 기대형으로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진단법은 주제 방향 “보고”를 예로써 설명하고자 한다.7)

- 과제 : 방학 중 있었던 일을 친구에게 편지로 써서 알리기
- 주제 : 여름방학에 대한 기억과 경험에 대한 보고

주제의 시간방향 ‘보고’의 시제 유희 모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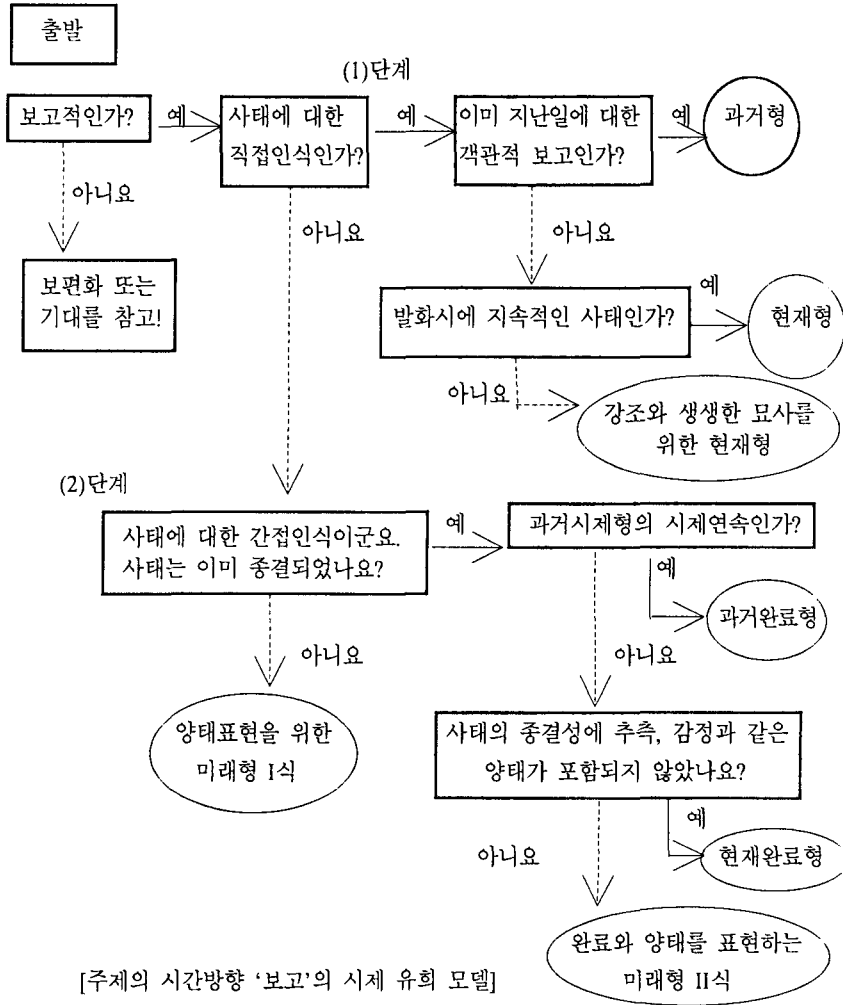
주제의 시간적 방향은 무엇인가? : 보고, 보편화 또는 기대 중 무엇인지 질문에 답하면서 화살표를 따라가 봅시다.

(아니오 .....> 예 —> 질문 □ 진단 ○)

과거형은 대부분 sein과 haben동사에 국한되었으며, 일반 동사는 현재완료형으로 표현하였다. 보고적이라는 성향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이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편지쓰기가 일정 양식에 통제받고 있으며, 상대를 대면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보고하려는 지난 일 역시 과거형이 아닌, 비과거그룹인 현재완료형이 담당하고 있다.

7) 주제의 시간적 방향 ‘보편화’의 시제 진단법은 「독어교육」 제 29집에 제시하였다.





이 진단 유희는 전체 도식을 한꺼번에 보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출발부터 물음에 대답하며 하나씩 찾아가보면 그 원리의 습득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심리테스트나 건강진단, 사랑 유형 찾기와 같이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까지의 경우를 예측하여 그 답을 해 봄으로써 미리 사태와 유형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볼 수 있는 도로표지판식 체크법이다. 흔히 대중잡지에

서도 이런 방식의 진단법을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따라서 어학 학습과정에서는 처음 접해 보는 생소한 방식일지라도, 쉽게 적응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 진단법의 첫 번째 특징은 물음에서 답을 거쳐 진단에 이르면 시제 사용 의도와 기능, 그때 필요한 시제형까지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첫 번째 진단의 결과로 얻는 과거형은 그 화살표를 따라 기능을 얻어낼 수 있는데, “주제의 시간적 방향이 보고인 경우, 사태에 대해 직접인식을 하고, 이미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보고하고자 할 때는 과거형을 사용한다”와 같은 시제의 기능과 형태를 한꺼번에 익힐 수 있다. 현재완료형의 경우는 “주제의 시간적 방향이 보고인 경우, 사태를 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사태의 완료성을 표현하지만, 과거형에 대한 시제연속관계는 아니며, 그 속에 추측과 같은 양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구체적인 시제 기능을 얻어 낼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직접인식과 간접인식의 물음으로 1단계와 2단계로 층이 나뉘는데, 1단계에서 도출되어 나오는 시제형태는 독일어의 기본시제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2단계에서 제시되는 시제형태들은 독일어의 확장시제형으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어 시제형태가 기본시제형에서 확장된 시제형태로 확대된 체계를 갖는다는 형태론적 특징도 제시할 수 있다.

## 5. 결론

2장과 3장의 기억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문법지식을 내재적 기억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억하려는 정보를 쉽게 인출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부호화시키고 인지적 조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하였다. 이것을 발단으로 삼아 학습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기억술의 활용을 위해 문법 요소 시제를 어떻게 개작할 것인지를 많이 고민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시제 유희는 시제의 기능을 도식화한 것이며, 의도에 따라서 시제를 선택해 볼 수 있도록, 시제형태 중심의 표명적인 문법지식을 상황 속으로 배치하고, 시각적 감각을 이용하도록 도식화하여, 매 기능마다 에피소트 연결체를 만들어서 내재적 학습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정보를 상황에 맞게 개작시켜서 제공해 보았다. 이 시제 진단법은 쓰기과제를 부여받은 학습자 입장에서 학습자가 다루고자 하는 과제

의 주제가 어떤 시간적 방향에 속하는가를 판단한 후, 사태와 인식자와의 관계를 스스로 의도에 따라 직간접 인식방법으로 선택하고 사태에 주관성과 객관성을 부여하면서, 해당 상황을 나타내어 줄 수 있는 시제는 어떤 것인지 그 시제유형을 진단받는 연습유형이다. 전통적 암기식 교육과는 달리 생산자로서 학습자가 시제 선택의 주관자로 되어 있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학습자가 어떤 화살표를 선택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학습자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습자의 의도와 주제의 시간성, 다양한 인식방법이라는 새로운 변이요소들을 가지고 시제 학습의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본 나름대로의 시도이다.

기억의 연구는 외국어 학습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오래 기억되고, 어학적 요소들이 의사소통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가장 효율적으로 관여하여 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기억에 대한 무수한 연구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표명적이고 지시적인 기억을 내재적이고 수행적인 기억으로 전이시켜서, 단기기억장치에 머무르는 의식적 지식을 넘어서 초상황적인 다양한 감각과 에피소드에 의해서 해당 정보를 코드화하여 내재적이며 수행적인 기억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보았다.

### 참고문헌

- Engelkamp Johannes (1991): *Das menschliche Gedächtnis*. Göttingen. S. 9-12.  
 Goschke, Thomas (1996): *Lernen und Gedächtnis. Mentale Prozesses und Gehirnstruktur*. S. 359-380.  
 Götzte, Lutz (1999): Der Zweitspracherwerb des Deutschen aus der Sicht der Hirnforschung. In: *Deutsch als Fremdsprache*, Heft 1.  
 Zimmer, Hubert (1997): Gedächtnis und Fremdsprachenlernen zum aktuellen Stand der Gedächtnisforschung. In: *Materialien Deutsch als Fremdsprache*, Heft 46.  
 박현선 (2003): *Tempusfunktionen in Texten*, Frankfurt a. M.  
 \_\_\_\_\_ (2004): 「주제의 시간적 방향에 따른 시제 사용의 교수법적 연구」, 『독어교육』 제 29집.  
 박권생 옮김 (2000): 『인지심리학: 이론과 적용』, 시그마프레스.

## Zusammenfassung

### Lernstrategie der Tempusverwendung in Bezug auf das prozeduales Gedächtnis

Park, Hyun-Sun(K.N.U.E.)

Wir können die Gedächtnisforschungen mit Fremdsprachenlernen verknüpfen. Ein Lernprozess ist gerade einer vom Gedächtnisprozess. Für einen erfolgreichen Fremdsprachenunterricht ist es nötig, dass beim Lernprozess ein Sprachwissen vom deklarativen Gedächtnis ins prozeduale Gedächtnis übertragen wird. Aber ein Lernerfolg ist je nach dem Individuum anders. d.h. der unterschiedliche Lerneffekt zwischen Lernenden hängt eventuelle von persönlichen Erfahrung und von dem episodischen Gedächtnis. Beim Lernprozess muss Sprachwissen vom deklarativen Gedächtnis zum prozedualen Gedächtnis übertragen werden, um Fremdsprachen zu beherrschen. Inzwischen spielen implizites Gedächtnis und episodisches Gedächtnis wichtig Rolle beim Übertragungsprozess. Dafür zeigen wir Lernstrategie der Tempusverwendung in Bezug auf die Gedächtnisforschung. Mit welchem Tempus will man seine Intention im Text ausdrücken? Dafür zeigen wir ein einfaches Spiel für den Fremdsprachenunterricht. Das ist das Spiel zur Strategie der Tempusverwendung bei der Textproduktion für das reportiv-orientierte Thema. Unsere Untersuchung der Tempora kann besonders im Fremdsprachenunterricht dazu beitragen, dass der Lernende als Produzent einerseits unter Berücksichtigung der Textsorte, der zeitlichen Orientierung des Theams und der Sprecherabsicht bei der Textproduktion die Tempora ohne Zögern auswählen und benutzen kann und dass der Lernende als Rezipient auch durch das Erlernen der verschiedenen Funktionen der Tempora versteckte Absichten des Produzenten richtig verstehen kann. Unsere Untersuchung kann in diesem Sinne hinsichtlich der Tempusfunktion bei der erfolgreichen Erweiterung der kommunikativen Fähigkeiten im Unterricht behilflich sein.

[검색어] 내재적기억, 수행적기억, 독일어시제  
implizites Gedächtnis, prozeduales Gedächtnis, die deutschen Tempora

박현선

137-907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한신타운아파트 801호.

hysunpark@yahoo.co.kr

논문 접수일: 2004. 10. 24

논문 심사일: 2004. 11. 25